

광주문예회관 공연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150평 규모 갤러리 문 열어
6~31일 개관전 '아프리카 현대미술'
연말까지 6개 기획전 마련
내년부터 전시 기획전 공모도



헨드릭 밀랑가 작 'Festival'

이제 광주문예회관에 공연을 보러 갈 때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양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와 느긋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문예회관은 최근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 리셉션 장소를 갤러리와 관객들을 위한 휴

게실로 변신시켰다. 갤러리는 대극장과 소극장 로비로 통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이다. 다양한 기획전과 함께 관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의자 등도 넉넉히 배치했다.

150평 규모의 이 공간은 지금까지 리셉션 장소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간간히 시립예술단체 연습공간으로 사용됐었다.

갤러리는 지난 3월부터 시비 1억5000만원(교향악단 등 3개 단체 휴게 공간 비용 포함)을 들여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일 정식 개관한다. 갤러리 오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다.

올해 전시 예산은 모두 7000만원(큐레이터 인건비 포함)을 확보했으며 이중 20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했다. 올 연말까지 모두 6개의 기획전이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전시 기획안 등을 공모할 예정이다.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개관 기념전은 '아프리카 현대미술전'(6~31일)이다. 원색 위주의 강렬한 색채와 간결한 선의 단순화한 표현이 돋보이는 아프리카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아프리카 부족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표현한 헨드릭(탄자니아), 급변하는 아프리카 현실을 시각적으로 다룬 두츠(세네갈) 등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

가 11명이 참여해 50여점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전시는 '큐브-여섯 개의 시선' 전(8월24일~9월18일)이다. 노여운, 설박, 양나희, 윤준영, 이혜리, 최요한씨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 6명을 초청했다.

가을에는 '차도구와 생활자기전'(9월21일~10월16일)이 마련된다. 소박하면서 멋스러운 생활자기를 선보이는 전시로 김진현, 심재천, 조재호씨 등 25명이 참여한다.

오는 10월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전시 지원 사업으로 확보한 기획전 '다문화 기금 마련 작은 전시 큰 사랑전'(10월19일~11월13일)을 통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도자기 등 지역 작가 50여명을 초대한다.

그밖에 '남미현대 미술전'(11월16일~12월11일), 이창호 작가 등 4명이 참여하는 '극사실주의 전'(12월14일~1월8일) 등이 대기중이다.

갤러리 사업을 진행한 이기환 공연사업장은 "회관 갤러리는 정통 미술관과 달리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이 주객중"이라며 "누구든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83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입두사 카사 작 '가족과 어머니'

문화전당 '아시아 문화 요술램프' 창조 가능한가

콘텐츠 창제작 방향 심포지움...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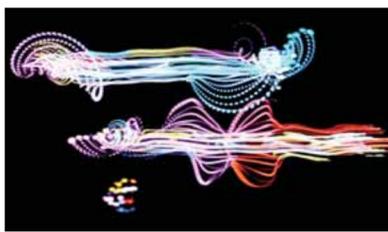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문화콘텐츠시멘트네트워크' 이사장 김연수와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공동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창작과 제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연다.

5일 오후 2시부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강당에서 '신인류 요술램프 창조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주제는 알리딘과 요술램프 이야기가 다양하게 각색됐던 것처럼 광주 문화에 아시아 스토리를 덧입혀 문화전당 요술램프로 만들자는 제안적 성격을 지녔다.

채종기 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움은 김

연수 이사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킬러콘텐츠가 답이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기형 아시아문화원 팀장이 '융합콘텐츠 생태계'에 대해, 김근태 중원대학교수가 '광주 문화원형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기획', 서상훈 현대수소차 책임연구원이 '연료 전지의 원리와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또 전시영 미디어아티스트가 '동물 보은형 설화와 미디어아트 가능성'을 주제로 만든 미디어작품을 선보인다.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근식 빅빅킨 대표는 '개미 캐릭터와 그 변신'을 주제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공개한다.



전시영 작가가 제작한 미디어아트 작품.

아시아문화콘텐츠창작 시멘트네트워크는 한국지역문화콘텐츠개발원 후신으로, 전국 인문학자, 창·제작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준을 받았다. 문의 062-229-02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름날의 힐링휴가

봄비는 관광지 대신 숨겨진 여행명소 소개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남향 7월호



'예향 초대석' 셰프 장진우의 삶과 음식 이야기

성큼 다가온 휴가철. 올 여름여행은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시작됐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7월호에서 그 고민을 덜어준다.

특집 '여름날의 여유, 旅·休'에서는 봄비는 관광지 대신 힐링과 여유를 추구하는 색다른 여행지를 소개한다. 고희에서 재배한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고, 직녀와 견우성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여름밤 은하수를 찾아보자. 곳곳에 자리잡은 정자들도 반짝반짝 생활의 고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훌륭한 쉼터다.

예향 초대석은 셰프이자 문화기획자, 라이프 아티스트인 장진우씨를 만나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음식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미래 꿈에 대해 들어봤다. 이달에 소개하는 장인은 목기 공예가 발달된 남원에서 옷칠의 세계화를 꿈꾸는 박강용 옷칠장이다.

'사람이 브랜드다'의 주인공은 국창 임방울. 광주 광산구서 태어난 임방울은 25세 되던 1929년 조선명정연주회에서 불후의 명곡 '속대머리'로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다. 나라 잃은 설움을 소리 하나로 씻어준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을 조명했다.

목사고를 나주로 떠나는 '남도 美味樂'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영산강을 끼고 발달한 나주는 전통과 첨단이 현존하는 도시다. 과거 전남의 중심지로 찬란했던 시절을 간직하고 목사내야, 금성관 등이 그 모습 그대로 자리하고 있고 금천·산포면 일대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여행작가 노중훈이 소개하는 꿈의 여행지 물타는 '안벽하게 아름다운' 섬으로 불린다. 유럽인들에게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물타의 바다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문화유적은 깊고 풍성하다.

이외에도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강학 자리인 순창 '훈몽재'와 매회 전시 매진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 예술의 전당의 '인문학 콘서트'를 찾아가고, 신작 '종의 기원'을 출간한 작가 정유정과 드라마 '또 오해영'을 통해 인기몰이를 한 에릭을 만나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예남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낭만, 체험 찾아
여름날의 旅·休

낭만 만끽 야한 여행
이색 체험 여행지 4곳
정자에 앉아 고요하게 休

남도 美味樂
유물과 유적으로 남은 시간의 숨결
홍이 장아 곶탕 맛의 3차
황포동배에 띄운 열산포 축제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
매회 전시 매진 신화 '인문학 콘서트'
대전 예술의 전당

노중훈의 꿈의 여행
낯설지만 완벽하게 아름다운 섬
물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젊은이들의 문화아지트 '동네줌인' 대표 김태진
그라운드에서 존재감 빛나는 광주FC 수문장 윤보상

리빙인 스토리
전문가 민서정씨가 알려주는
'포슬린 아트' 기법과 매력

예향 초대석
청년들의 창업 멘토
감성셰프, 장진우
"광주 청년들과 '국 폴리' 맛있게 만들게요"

남도의 장인들
정제기술로 옷칠의 현대화 시도
옷칠장 박강용

사람이 브랜드다
눈물 쏟아야만 정장, 유일무이 소리꾼 임방울

전북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강학 자리, 순창 훈몽재

정유성의 스포츠 인사이트
축구팬 위촉시키는 '홀리건 악행'

문화 화제
해남 배짱이네 예술창고
'고라니'가 키우는 공발전

전시 리뷰
문자조각의 유연한 해석
박정용의 '물·봄'

스타 데이트
"여심 사로잡은 비결은 대본에 충실한 연기"
tvN '또 오해영'의 박도경으로 인기몰이, 에릭